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6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6:1-8”(구약p.121)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성막을 덮는 네 겹의 막”/인도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막을 덮는 막은 모두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베 실로 짠 고운 막이었고,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든 막이었으며,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겹덮개였습니다. 이 네 겹으로 덮인 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함과 동시에 지상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등을 보여 주고 있는데,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성막의 의미입니다.

먼저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법궤를 보관하는 성막이 건물이나 아닌 하나의 텐트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장막’의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정착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진행하였고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법궤를 모시는 성막 역시 이동하기 쉬운 ‘텐트’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영적 교회 역시 한 곳에 머무르는 고정 관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머무르려는 안이한 생각의 교회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안주하려는 성도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만일 움직이려 하지 않고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안주하려 한다면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의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듯이 이동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2. 성막을 덮는 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막을 덮는 막에 관해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봅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막은 모두 네 겹의 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네 겹의 막은 각각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1) 가늘게 꼰 베 실로 짠 내부 덮는 막, 맨 처음 드리워진 내부 덮는 막의 재료는 성결, 평안 또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이처럼 지극히 거룩하였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과 평안 그리고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2) 염소 털로 만든 두 번째 덮는 막, 염소 털 가죽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운 성품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낙담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위로자이십니다.

3)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막, 붉은 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대속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양이었습니다.

4)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겹, 덮개 맨 위를 덮은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강풍 그리고 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썩지도 파손되지도 않는 해달의 가죽은 이러한 모진 환경을 잘 이겨내는 질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 역시 사탄의 유혹과 대적자들의 음모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당하셨지만, 결코 패하거나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승리자이셨습니다.

3. 연합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는 금고리입니다.

성막을 덮는 막은 각각 5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꿰매어 두 개로 늘어뜨려진 막을 만든 후에 금고리들로 연결하여 하나의 막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성도들 역시 육체는 각각 분리되어 있어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알맞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한 성전’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험담 그리고 고집과 분쟁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질 때 교회는 성립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덮개 여러 개가 모여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의 막을 이루었듯이, 성도들 역시 뜻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데 서로 간의 잘못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헐뜯기 보다는 용서하고 분쟁하기보다는 사랑하여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 줌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될지언정 ‘헤치는 자’ 즉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83장(통1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9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드리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